

1/5(수) 창세기 12-16장 떠나라!

셈의 후손 중 데라의 가정에서 아브람이 태어납니다(11:27).

하나님은 아브람을 불러 선택하셨고 축복하셨습니다(12:1-3).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은 <땅과 민족>으로 구체화 됩니다.

하나님은 거듭 축복하셨으며(12:2-3, 13:14-17)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십니다(15:4-5).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12:1).

아브람은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 익숙한 땅을 떠나야 합니다.

아브람은 일가친척의 보호와 유대에서 떠나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가야 합니다.

아브람은 가족의 영향력과 기반을 떠나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데라의 가정은 슬픔이 깃든 가정이었습니다(11:27-32).

아브람의 형제 하란은 자녀를 남겨두고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아브람의 아내 사래는 임신하지 못하여 자식이 없었습니다.

데라의 며느리 <사래와 밀가>의 이름으로 볼 때,

그들은 달을 섬기던 지역 종교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 <사래와 밀가>는 달의 신, 신(Sin)의 아내와 딸의 이름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은 아브람이 복을 누리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려고,

슬픔과 아픔의 자리에서 끄집어내어 새로운 삶으로 옮기십니다.

유혹과 시험이 될 만한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참 신앙인으로 서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독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무엇으로부터 떠났고, 무엇으로부터 아직 떠나지 못했는지 살펴보며 통독해 보십시오.

내가 떠나야 할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은 어디인가? 통독하며 묵상해 보십시오.

* 고향 세상 영역, 세속, 잘 아는 지역이나 법위/영역(내 힘으로 통제 가능한), 익숙한, 갖추어진.

* 친척 치안 유지가 잘 되지 않았던 고대 사회에서 피의 보복을 감행해 줄 보호자, 안도감을 주는 존재.

* 아버지의 집 유대감, 결정에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 물질/감정적으로 의지할 대상, 상속, 연속성, 권리.